

가사노동의 변화

송 예 림 (울산대학교 아동·가정복지학과 교수)

본 논문은 현재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로 등장, 논의되고 있는 ‘주 5일 근무제’ 실시에 따른 가족관계, 경제생활, 가사노동 등의 가정생활 및 여가생활이 실태에 대하여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직장의 남성 그리고 그들의 아내를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. 이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그동안 주 5일 근무제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, 노사간 협의가 주된 쟁점이 되어 경제적 관점에서의 접근 즉,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면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그 핵심이었다. 정작 주 5일 근무제가 되면 몸으로 마음으로 실제 생활상에서 부딪치고 경험하는 생활의 주체, 즉 가정생활단위 및 구성원의 복지와 삶의 질에는 어떤 변화가 초래될 것이며, 어차피 주 5일 근무제가 정착, 확산될 추세라면, 어떤 주체적 대응이 필요할 것인지, 또 우리의 삶에서 우려되는 부작용은 무엇인지, 그에 대하여 어떤 준비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는 비껴있었던 것이 사실이다. 그런 문제제기에 토대하여, 본 연구는 주 5일 근무제 도입이 가정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우리 연구의 관점을 잘 드러내고 있으며, 이를 통하여 개인 및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가정학(생활과학)의 학문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.

본 연구에서 나온 흥미로운 결과들, 그리고 그에 기초한 논의와 제안들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. 후속연구를 위해 몇가지 제안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.

첫째, 본 연구에서는 남성 뿐 아니라 여성들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남녀의 다

른 경험을 조사하고자 하였는데, 남성의 경우는 모두 취업한 사람들인 반면 여성의 경우는 전업주부(55.5%), 취업주부(40.7%) 그리고 부업(3.8%)으로 구분되고 있다.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대한 의견, 주 5일 근무제 시행의 긍정적·부정적 변화를 포함한 다양한 조사 내용에 있어 여성의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를 함께 검증하였으면, 보다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으리라고 볼 수 있다. 물론 대상자 수가 충분치 않은 제한점은 있으나, 취업한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에게 있어 주 5일 근무제가 다른 의미로 다가오며, 그 생활상의 경험이 동일하지 않을 것임은 자명하며, 따라서 주부의 취업여부를 변수로 고려하였다면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이 보다 풍부해졌을 가능성도 있다.

둘째,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부정적 변화로 남편과 아내 모두 소비의 증가를 제시하였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보다 부각시키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. 결국 늘어난 여가시간이 소비와 직접 맞물린다면, 이는 또다른 계층적 차이 및 위화감을 조성할 원인이 되므로, 이러한 실태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 생활의 주체들이 어떻게 건전한 주말, 여가를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로 보다 확장해야 할 필요가 크다. 따라서 국민의 늘어난 여가시간을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설, 설비 및 각종 인프라 환경의 조성이 우선은 공공재적 차원에서 지원되어야 한다는 강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.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로 그것이 요구될 수 있도록 연구자들은 자극과 동기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.

셋째, 이러한 맥락에서 주 5일 근무제 실시와 함께 시급히 필요한 정책적·제도적 과제에 대한 논의가 보다 적극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. 주 5일 근무제의 주인공은 경제가 아니다. 기업도 아니다. 바로 하루하루 일상생활의 주인공인 우리이다. 우리 -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-는 연령, 학력, 직업, 소득, 가정생활주기 등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조건이 서로 다르고, 본 연구에서 언급한 성역할태도 등을 포함한 사회·심리·문화적 토대도 다 다르다. 이처럼 다양한 인구집단 대부분에게 주 5일 근무제가 긍정적 효과를 미치고 그 결과 우리의 복지가 향상되려면 우선은 제도와 정책이 변화해야 한다.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 태도 변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한 예로 제시하였는데,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제안될 필요가 있다.

넷째, 전반적인 연구의 결과들이 삶의 질 향상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함의를 갖는지가 보다 정교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. 가정생활이라는 개념 속에서 가족관계, 경제생활, 가사노동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여가생활을 연구범위로 선정한 배경은 무엇인지, 이러한 영역별 조사내용 및 결과들이 주 5일 근무제라는 주제와 함께 전반

적인 가정생활의 변화추세를 설명함에 있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.

시기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논의거리와 연구과제를 마련해 준 본 연구의 결과들은,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자·정책입안자 그리고 우리들 生活者 각자의 관점이 변화되고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. 주 5일 근무제는 ‘덜 일하고 더 놀겠다’는 새로운 문화의 시작이다. 휴가도 반납하고, 가족과 헤어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노동에 전심전력하던 이 땅의 생산노동자들이 이제는 닷새만 일하고 이틀은 놀겠다는 것이다. 그러고도 우리의 생활수준은 뒤쳐지지 않는다는 것이니 이 얼마나 획기적인 변화인가. 바야흐로 ‘생활의 질’이 무엇인가의 개념이 다시 규정되고, 우리 삶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에 대한 사고의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. 이는 자유시간, 여가시간, 가족공유시간 그리고 재생산시간 혹은 재생산노동 등이 우리 삶에 확고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으로 연결된다.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우리 가족자원경영학자들이 늘 관심 두던 연구주제들이다. 생산보다는 재생산이, 물질적 풍요로움보다는 삶의 복지가, 개발과 건설보다는 돌봄과 살림이 더 가치를 부여받는 새로운 문화,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가족자원경영학으로 재탄생해야 할 것이다.